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민 경 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소외는 철학의 역사와 더불어 그 의미가 변천해 온 개념으로서 Marx 이후에는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의 존재양태를 지칭하는 문명비평적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소외는 개인의 행동에 쫓음을 닮는 경험과학인 심리학에서는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소외는 중요한 심리현상으로서 인식론에 치우친 심리학에 도입하여 조명할 필요가 있는 존재론적 개념이다. 필자는 소외를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의 상실 혹은 부재'로 정의함으로써 소외를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심리학적 정의를 토대로 하여 소외의 유발조건들, 탈소외의 방략들, 소외와 관련된 심리현상들, 및 소외 심리학에서의 연구제들을 논의하였다.

현대인의 삶(삶의 조건과 행동, 마음의 상태를 포괄하여)은 흔히 疏外라는 상태로 대표되곤 한다. Marx에서 비롯된 현대사회의 '소외'진단은 비록 그 원인이나 해결 방안에서는 상이할지라도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소외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질적이 되는 과정이나 과정의 결과'(Petrovic, 1972) 혹은 '본래 지녔던 어떤 것이 상실되거나 낯설게 되는 상태나 과정'(Outhwaite, 1983)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소외의 개념은 역사에 따라서 변화해 왔고 학자들에 따라서 상이한 현상을 지칭하곤 한다. 법에서 소외는 재산을 증여나 매매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양도하는 것을 지칭한다. Hegel의 철학에서는 절대정신으로부터 이질적이 되는 현상을 소외로 파악하며, Feuerbach에서는 인간이 신의 노예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를 소외로 간주한다. 한편 정신의학에서 소외는 정상으로부터의 이탈, 즉 정신이상을 의미하고, 현대 사회학에서는 개인이 사회나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질감을 소외라고 부른다. 현대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에 있어서 소외는 物化(reification) - 즉 인간의 속성들, 관계들, 그리고 행위들을 인간과 독립적이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사물의 속성과 행위들로 변환하는 행위나 행위의 결과 - 를 의미한다. Marx를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현대를 소외의 시대로 파악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인간성의 상실과 물화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심리학에서는 소외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심리학자들은 소외가 심리학에서 추구되기에는 너무도 형이상학적이라고 보거나 저시적인 개념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그러나 소외를 철학에서 논의하듯 인간존재의 보편적 현상이거나 사회학자들이 규정하듯 특정 사회유형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소외는 무엇보다도 개인이 살아나가면서 체험하는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심리학의 적법한 주제이다. 소외를 심리학에 도입하여 연구하는 것은 종래의 소외개념의 제약과 편파를 타파하고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심리학내에서는 인식론에만 치우쳐서 연구되었던 많은 심리현상들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외개념의 역사

소외 (alienation ; alienation ; Entfremdung) 개념의 연원을 추구하는 작업은 간단치 않다. 소외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을 지칭하는데 어떤 현상을 지칭하느냐에 따라 소외의 기원은 달리 파악되기 마련이다. 정문길의 '소외론 연구'(1978) 및 '소외'(1984)를 참조하여 소외개념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Fromm은 소외개념의 기원을 구약성서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이상승배에서 찾는다. 이상승배자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것을 소외된 형태로서의 자신의 생명력을 대변하는 존재로 삼는다는 것이다. 한편 보다 실증적인 입장의 Lichtheim(1974)은 소외의 개념이 3세기의 Neoplaton학과에 속하는 Plotinus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Plotinus는 궁극적이며 규정할 수 없는 원천 혹은 원리가 수다한 유한한 존재들로 진행해가는 방사현상(emanation phenomenon)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온전한 하나가 다양한 표현으로 전개되면서 하향적 과정에 의하여 영혼적 존재가 낮은 위계의 세계와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물질적 존재의 세계에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물질을 썩 혹은 낮은 위계의 존재로 파악하는 태도는 Augustine 등의 초기 기독교 신학에서 수용되어 Luther에 의해서 독일의 Protestant 전통을 이루어 Hegel의 소외의 개념화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의 대부분의 사상들이 Plato와 기독교에 연원하고 있다고 본다면 소외의 개념 역시 이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소외의 개념이 사회나 문화와 관련지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근대사회의 성립과 더불어서이다.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은 인간을 종교적 속박이나 절대군주의 자의로부터 해방시켰으나 동시에 인간이 사물과 동등시되고 양적 기술적 조작에 의하여 삶이 구성되고 분업을 통하여 통합된 인격을 상실하는 등의 비인간화 현상을 배태하였던 것이다. Toennies(1967)에 따르면 인간은 또한 일체성과 정감이 넘치는 공동사회적 본질의지에서 이탈하여 그 혼자로서 고립되고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이 역사학적 선택의지에 의해서 지배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르네상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본격적인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엽 무렵으로서 소외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사상가인 Rousseau는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의 문제, 즉 한 인간이 인간과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그는 개인의 특수의지는 그 성격상 불평등을, 일반의지는 평등을 지향한다고 보고, 개인은 일반의지를 지닌 공동체에 그들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을 전개하였다. 이때 양도는 소외와 같은 단어로써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소외라는 단어의 사용과는 별도로 Rousseau는 '에밀'에서 인간이 문명에 의해서 오염되어 인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뒤의 소외이론가들의 문명비판과 흡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소외개념의 선구자는 Hegel이다. 소외는 Hegel에서 비로소 學的 개념으로서 확립되어 Feuerbach를 거쳐 Marx에서 開花하여 사회과학의 중심개념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소외개념의 발전에 공헌한 중요한 학자들과 그들의 소외이론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egel Hegel은 Luther 신학에서 출발하여 소외의 개념을 발전시켰지만 1807년에 출간된 '정신의 현상학'에서 '소외된 영혼'을 분석하면서 소외의 기독교적 성격을 제거하고 소외개념을 관념론적 존재론의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 변환시켰다. 그는 자기소외가 인간존재의 궁극적인 소여로서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주체-객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자연이 개인의 의식 속에 제시되는 양식은 自己外化 (Selbstentaeusserung)로 일컬어지는데 이때 의식이 외부세계를 객관화된 정신으로 보지 않는 한 소외되며 이 자기소외 (Selbstentfremdung)는 이 간격이 자기 의식에 의해서 좁혀지는 정도만큼 극복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절대성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지속적인 성장으로서 인간은 유한한 정신을 통해서 절대성에 대한 지식 (自意識)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연속에서의 자신의 자기소외로부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유한한 정신은 사물을 생산하고 자신을 대상 속에서 표현하고 물리적 사물과 사회적 기관과 문화적 산물 속에서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매 객관화는 필연적으로 소외의 순간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소외는 오직 적절히 압에 의해서만 극복이 된다. 이러한 절대성에 대한 자

기지식을 추구하지 못할 때 인간적 핵심을 성취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소외된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Feuerbach Hegel로부터 시작된 소외개념의 세속화는 Feuerbach에서 더욱 촉진되었다. Feuerbach는 절대정신 혹은 영혼이 자연세계 혹은 물질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배격하였다. 그는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Hegel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자연이 절대정신의 자기소외된 형태이며 인간이 탈소외과정 속에 있는 절대정신이라는 견해는 부정하였다. 그에게서 인간은 자기소외된 神(절대정신)이 아니고 오히려 신이야말로 자기소외된 인간이었다. 인간은 자연을 신의 자기소외된 형태로 인식하지 못할 때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에 상상적인 낯선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노예로서 경배할 때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소외는 인간에게 이질적인 형상, 즉 신의 폐기에서 이루어진다고 Feuerbach는 주장한다.

Marx Karl Marx는 인간의 자기창조가 소외와 탈소외의 과정이라는 Hegel의 생각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는 소외를 객관화와 동일시하고 객관성을 배제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외의 극복이 순수사고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Hegel의 입장을 비판하고, 소외는 사회조건의 결과이며 사회의 개혁을 통하여 소외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Marx는 존재론적이었던 소외의 개념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변환한 사람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Feuerbach의 이른바 종교적 소외 뿐 아니라 수단한 형태의 소외를 경험한다. 인간은 정신적 활동을 통하여 철학과 상식과 예술 등을 생산하지만 이들 산물들은 소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것은 경제적 활동이 생산하는 재화와 화폐와 자본,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산물들인 국가나 법이나 사회제도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자신으로부터 그 자신의 활동의 산물들을 소외시키고, 그것들을 분리되고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물들의 세계로 만들며,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노예로서 무력하고 의존적으로 관계를 맺는 형태는 수단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의 산물들을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킬 뿐 아니라 그 자신을 이들 산물들이 생산되는 바로 그 활동으로부터, 그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로부터, 그리고 다른 인간들로부터 소외시킨다. 모든 이러한 종류의 소외는 최종분석에서는 하나로서 인

간의 자기소외의 단지 상이한 측면들, 즉 인간의 에센스 혹은 인성, 또는 인간됨(humanity)으로부터의 소외의 상이한 형태들일 따름이다. 자기소외된 인간은 진실로 인간이 아닌 인간, 역사적으로 창출된 인간의 가능성들을 실현하지 못한 인간이며, 소외되지 않은 인간은 진실로 인간인 인간,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praxis)의 존재로서 그 자신을 성취한 인간이라고 본다.

Marx에 있어서 소외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세계를 변환시키는 실제적 활동에 놓여 있다. 이점에서 Marx는 Hegel이나 Feuerbach의 유심론적 해결과 대치되는 유물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 '핵심적 존재'를 노동에 두고 있으나 이 핵심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계에 의해서 그로부터 박탈된다고 본다. 소외가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역사적 형태에 기인하는 만큼 이 세계의 과격한 변환이 소외라는 비인간적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고 Marx는 믿었다.

소외와 탈소외의 개념은 Marx의 초기 저술들, 특히 1844년에 쓰여지고 1932년에 출판된 '經濟 및 哲學的 手稿'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개념은 그의 후기 저술에서도 여전히 그 바탕이 되지만 명시적 이라기 보다는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한동안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手稿'의 출판 후, 특히 2차 대전 이후로 이 개념들은 맑스주의자 뿐 아니라 비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철학자들 뿐 아니라 사회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문학비평가들, 작가들 사이에서도 열정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공산혁명이 인간의 소외를 해결할 수 있다는 Marx의 주장은 공산주의의 실패와 더불어 무너졌다고 보아야 옳다. 사실상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에서는 당의 독재로 인하여 시민들의 소외감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Marx가 지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는 여전히 타당하다. 실패한 것은 공산혁명에 의한 소외의 극복일 뿐 소외 자체는 상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에 의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Fromm 新 Freud 학파에 속하는 Erich Fromm (1941, 1947, 1956)은 정신분석학과 맑시즘을 결합하여 그의 독특한 '인간학'을 구성하였다. Fromm은 Marx와 마찬가지로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소외의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그는 Marx와는 달리 소외를 생

산과정 속에서 제급적으로 종속되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인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Fromm에 따르면 수량화와 추상화로 대표되는 현대 산업사회는 비생산적인 인간을 양산한다. 이들 소외된 인간들에는 수용지향형, 착취지향형, 저장지향형, 시장지향형, 공격지향형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현대사회가 유발하는 무력감과 고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권위주의나 파괴나 자동 인형적 동조 등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도피하려고 시도한다. Fromm은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소외를 '건전한 사회'(sane society)의 건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건전한 사회'는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궁극적 목표가 되는 인간주의적 사회 혹은 공동체적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된다.

Seeman Melvin Seeman (1959, 1972)은 소외개념에 대한 미국의 사회학자들의 가치중립적 경험주의적 입장을 대표한다. 소위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지칭되는 그의 소외이론에서 그는 현대의 구조적 경향이 소외의 제 형태를 낳고 그로부터 행동적 제 결과들이 발생한다는 도식을 제시한다. 따라서 현대의 구조적 경향은 독립변수가 되고, 소외의 제 형태는 매개변수가 되며, 행동적 제 결과들은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서 현대의 구조적 경향은, 혈연관계에서 비 인격화로, 전통적인데서 합리 적인 형태로, 동질성에서 이질성으로, 안정에서 기동성으로, 그리고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외의 제 형태는 무력감(powerlessness), 무의미성(meaninglessness), 무규범성(normlessness), 가치의 고립(value isolation), 자기소외(self-estrangement),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등이다. 한편 행동적 제 결과들은 정치적 변동성, 무모한 쟁의, 대중운동, 인종적 편견, 정신적 무질서, 학교의 결석, 낮은 정보수준, 자살 등등이다. Seeman의 이론은 흔히 사회심리학적 이론이라 지칭이 되지만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아니다. 그의 이론의 출발은 사회학의 대중사회 이론으로서 사회적 조건이 개인으로부터 특정 감정상태를 유발하고 이 감정상태로부터 특정 행동이 뒤따른다는 Durkheim식의 전통적 사회학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Segal Jerome Segal (1990)은 소외를 사회나 경제 구조 등과 관련시키지 않고 독립적인 현상으로서 개념

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개념화에서 소외감(alienness)은 "자기(self)의 어떤 측면을 낯설게 느끼는 것(p.127)"으로 정의된다. 많은 유형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과거행동을 낯설게 느끼는 것, 자신의 현재행동을 낯설게 느끼는 것, 자신의 감정을 낯설게 느끼는 것, 자신의 신념을 낯설게 느끼는 것, 자신의 삶을 낯설게 느끼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전체 자아를 낯설게 느끼는 것 등이다. 소외감은 단순히 무엇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신념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지만 소외감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는다.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는 오직 나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신념 뿐이다. 그러므로 소외감은 자기의 한 측면을 나의 것이되 동시에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체험하는 것(the experience of an aspect of one's self as my-own-yet-not-my-own)을 일컫는다. 이렇듯 Segal은 소외를 자기소외에 국한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의 소외, 분배로부터의 소외,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등 이른바 사회적 소외는 다루고 있지 않다. 아마도 그는 사회적 소외를 자기소외와는 다른 수준의 분석이 필요한 별개 현상으로 간주하였던 듯 싶다.

Segal의 소외이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소외를 통합성(unity) 혹은 전체성(wholeness)의 결여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의 소외이론 속에서도 통합의 부재가 소외의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되어 오곤 하였다. 대표적 소외 이론가인 Marx는 그의 초기 저술인 '手稿'에서 노동의 분화가 인격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격의 불완전 상태를 소외라고 규정한 바 있다. Segal은 소외를 자기와 자기의 요소들(행동, 감정, 신념, 가치 등)간의 통합의 부재로 파악하고 이 통합의 부재가 세 곳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각기 행동의 요소들간, 자기의 요소들간, 그리고 이 두 복합체간이다. 만약 이 세 영역에서의 통합이 완전하면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 즉 Segal의 표현을 빌면 '행위주체성(agency)'을 부여받으며 어느 하나나 그 이상의 영역에서 통합에 실패하면 소외의 체험("나는 나의 행동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Segal은 위의 세 영역 각각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외의 상태를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우선 첫째 경우는 행동(여기에는 행동 뿐만 아니라 감정, 신념, 가치들도 포함된다)의 요소들간의 통합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인데 Segal은 이를 '요소의 환원(reduction of aspect)'이라고 지칭한다. 여기서는 어떤 측면 혹은 요소 자체 내에서 필수적인 통합이 결여되어서 행동(혹은 감정, 혹은 신념, 혹은 가치)처럼 보이는 나의 측면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인 경우이다(나는 실제로는 행동, 감정, 신념,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등). 이때 자기의 존재나 자기와 요소간의 연결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해당 요소가 요구되는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이다. 예를 들면 나의 행동이 사실상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동작이거나, 신념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라던가, 성격특질이 아니라 단지 과거행동의 패턴이라던가 등이다. 두번째 소외의 상태는 '개인/자기 애매성(person/self ambiguity)'으로 개인과 자기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이때 요소(행동이나 감정, 신념, 가치 등)의 實在性과 요소와 어떤 개체간의 연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요소를 산출하는 개체가 진정한 자기가 아닌 경우이다. 즉 나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동은 나의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나는 그 행동의 주체가 아니다. 나는 그 행동을 산출한 사람을 진정한 나, 즉 자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세번째 소외의 체험은 '어긋난 관계(alternate relation)'이다. 여기서는 요소의 실재성도 갖추고 있고 자기의 존재도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와 요소간의 필수적인 통합이 결여되어 있다(나의 행동이 존재하지만 나는 그 주체가 아니다. 나는 그 욕구를 갖고 있지만 그 욕구는 진정한 나의 것은 아니다 등등). 여기서 비일관성이 요소와 자기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다. 자기도 존재하고 행동이나 감정이나 신념 등의 요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기가 이들 요소들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자기와 요소와의 관계는 실재적이지 않은 것이다.

Segal의 소외이론은 소외를 구조적 모델로 개념화하고 통합의 측면을 강조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더불어 자기나 행동, 감정, 가치, 신념 등 심리적 요소들 자체 및 이들간의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소외를 접근함으로써 소외현상이 사회학이나 경제학 혹은 정치학의 과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과제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는 그의 소외모델에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Segal의 소외이론은 심리학의 이론이나 심리학에서 발견한 사실과 법칙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리학적인 함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형이상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Hegel, Feuerbach, Marx, Fromm, Seeman, Segal 등 중요한 소외 이론가들에서 소외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 보았다. 이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Hegel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온 소외개념의 핵심성격은 자기소외이다. 이는 소외가 일상적인 용법에서 주로 사회적 소외(사회나 권력이나 분배로부터의 소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소외이론들은 소외의 선행조건들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소외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다. Hegel이나 Marx를 보더라도 소외를 가져오는 정신상태나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예리한 비판을 하지만 그들이 소외라고 명명한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최근의 Segal에 이르러서야 소외의 개념적 분석이 시도된 정도이다. 셋째, 소외는 경험과 학보다는 관념론이나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주제로서 간주되어 왔다. 주요한 소외이론가들 중 경험 과학자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철학자나 사회사상가들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Marx 이후에는 소외가 문명비판(주로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의 도구로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소외는 그 성격상 심리적 측면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현상으로는 취급되고 있지 않다. Fromm이나 Seeman의 이론을 심리학의 범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각각 정신분석학과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의 영역에 속하며 정통적인 심리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가장 최근의 Segal의 개념화에서는 상당히 정교한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리학이 지향하는 경험과학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소외현상의 심리학적 접근은 전통적인 소외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새로이 개념화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심리학에서의 소외의 개념

지금까지 소외개념의 역사에서 살펴 보았듯이 소외는 철학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Marx 이후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소외는 한때 유럽의 지식인 사회의 사회주의에 대한 경도에 힘입어 사회과학의 중

심적인 개념의 하나로 각광을 받았으나 1970년대 이후 사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의 득세와 더불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 소외개념에 대한 관심을 소멸시킬지 혹은 부활시킬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한편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대부분의 사회과학들에서와는 달리 심리학자들은 소외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아마도 그 첫번째 이유는 여타의 사회과학과는 물론 사회현실과도 괴리되어 실험실 속에서 성장해 온 심리학으로서는 소외의 현상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Fromm과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현대인의 삶의 양태를 소외와 꾸준히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지만 전통적인 심리학 속에서 소외는 적법한 연구주제로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심리학자들의 역사적 사회현실에 대한 불감증 외에도 심리학의 과학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도 소외의 연구에 장애가 되었다. 소외는 역사적으로 신학, 철학, 사회학, 문학 등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칭하면서 변화해 온 개념으로서 개념의 명료성과 조작적 정의를 선호하는 심리학자들에게는 경험적 연구가 불가능한 낭만적이고 공허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심리학자들의 자연과학적 엄밀성에 대한 집착은 경험과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심리학의 경우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체형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민경환, 1986). 소외가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무시되어 온 세번째 이유는 심리학에서의 인식론의 득세이다(Vandenberg, 1991). 심리학에서의 인식론적 강조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인간의 知的 측면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情的 측면에 대한 관심의 소홀이다. 심리학에서 정서에 대한 연구는 학습, 지각, 인지 등에 대한 연구보다 활발하지 못하고 이론 자체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행동이 인지적 매개의 결과라는 믿음이다. 그 결과 정서나 정신병리와 같은 전통적으로 존재론적인 주제조차 인지적 인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이 시도되곤 하는 것이다. 소외는 존재론적 주제로서 소홀히 취급되어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종래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루어 오던 개념을 심리학에서 도입하여 재정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소외가 심리학의 적

법한 주제이며 동시에 심리학에 공헌할 수 있는 개념임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선 소외가 심리학의 적법한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가 개인적인 과정임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외가 철학과 사회학을 거쳐 심리학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하여야 한다. Hegel과 Feuerbach에서 소외는 형이상학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Marx에 있어서는 다분히 사회학적이다. 더우기 Marx에게 있어서 소외의 조건은 사회적 경제적이지만 그 결과는(비록 Marx 자신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통일된 인격의 상실로서 다분히 심리적 상태이다. 이러한 심리적 측면의 강조는 Marx 이후의 소외학자들에게서 더욱 뚜렷해진다. 예를 들면 Toennies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고 공동사회에서는 본질의지가 이익사회에서는 선택의지가 인간관계와 인간행동의 주도적인 動因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서는 사회적 조건 혹은 특정 사회유형이 서로 구별되는 유형의 인간의지라는 심리적 과정을 산출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Fromm은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을 여러 성격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사회유형에서 산출되는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각 성격유형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인간행동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제시함으로써 심리학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는 Seeman이 소외의 분석에(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을 도입하였고, Segal은 소외를 사회체제와 분리시켜 개인적인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니까 현대의 소외이론가들은 소외현상의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학문적 배경 때문에 소위 과학적인 심리학과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외는 사실상 어떤 사회 어떤 문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소외의 보편적인 정의로 제시하였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질적이 되는 과정이나 과정의 결과” 혹은 “본래 지녔던 어떤 것이 상실되거나 낯설게 되는 상태나 과정”으로부터 소외가 그 정의상 문화의존적인 과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소외가 현대 산업사회를 비판하면서 부각된 개념이기는하나 위의 정의에 입각한 소외는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경험인 것이다. 사회과학의 많은 질문들은 철학에서 비롯되었던 것들이다. 소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 질문을 사회학에서 계승하여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사회학적 설명개념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에서의 소외개념은 이제 더 이상 생동하는 개념이 아니다. 소외를 타개하려는 대규모의 집단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물론 소외의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제 소외를 개인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길을 모색할 단계이다. 소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따라서 형이상학에서 출발하였던 소외를 경험과학의 다른 한 갈래에서 계승하여 연구한다는 학문적 의미도 포함한다.

소외개념의 도입이 심리학에 어떤 공헌을 가져올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뒤에 소외와 관련된 심리현상들을 소개하면서 대답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식론에 치우친 현재의 심리학에 존재론적 관점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발달이라든지 태도변화, 편견, 성역할 등의 주요한 심리현상이 인지적 현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심리학의 실정이다. 그러나 인지적 변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인지 만능주의는 인간의 성격이나 존재적 조건들이 갖는 힘과 한계를 무시함으로써 인간이해의 왜곡을 가져왔다. 소외의 연구는 이러한 인간이해의 편파를 교정하는 데 공헌을 할 것이다.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의 또다른 공헌 가능성은 소외의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탈소외의 길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래 소외가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논의될 경우 탈소외는 형이상학적 통로나 사회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소외의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직면하는 일상에서의 상황을 교정하거나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탈소외가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소외의 심리학적 정의

필자는 소외를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의 상실 혹은 부재”(the loss or absence of integration between one's self and his behavior)로 정의한다. 소외는 소외감,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낯선 느낌”을 수반한다.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의 부재는, 행동 속에서 자율성과 의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확인된다. 소외의 유발조건들로는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갈등, 자기와 상황간의 갈등, 그리고 겉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소외의 발생은 존재에 대한 불안, 즉 실존적인 불안을 가져온다.

이 새로운 정의에서 소외는 자기소외이며 자기와 ‘행동’간의 관계에서 소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행동’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소외 필자의 정의에서 소외는 자기로부터의 소외, 즉 자기소외(self-alienation)를 의미한다. 우리는 앞서 소외연구의 학문적 전통에서 소외는 자기소외의 의미로 주로 논의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자기소외는 “자기의 어떤 것이 상실 되거나 낯설게 되는 상태나 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필자는 ‘자기의 어떤 것’을 ‘행동’으로 지정함으로써 소외현상을 경험과학인 심리학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을 따름이다. 한편 소외문헌에서는 타인이나 생산물로부터의 소외가 언급되기도 한다. 전자는 사회적 소외로 지칭될 수 있으며 후자는 자기의 행동의 결과물에 대한 소외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소외의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소외현상에 관심을 가진 일부 심리학자들은 ‘바람직한 관계의 상실 혹은 부재’(Keniston, 1960)를 소외라고 지칭하며 고독(lonliness)과 가끔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소외는 종종 사회적 소외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외의 심리학에서는 소외를 자기소외와 사회적 소외로 분류하여 논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동의 강조 새로운 소외의 정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행동의 강조는 소외가 자기와 사회문화적 상황간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행동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동조적 자동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소외를 탈피할 수 없는데 반하여 어떤 사람은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통하여 소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다. 즉 사회문화적 상황은 소외발생의 배경에 불과하고 자기의 행동이야말로 소외의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인 것이다. 더불어 자기의 행동이야말로 자기와 외계를 연결짓는 자기의 부분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외계에 반응하기 때문에 행동은 외계에 대한 자기의 발현인 동시에 외계에 의해서 굴절된 자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행동이 자기와 얼마나 괴리되었느냐에 의존하여 소외여부를 판단한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개념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행동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관찰은 과학적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들 중의 하나이다. 행동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 자료를 추구하는 심리학의 성

격과 부합되기 때문에 행동주의의 출현이라 심리학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찰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소외의 심리학에서는 소외를 행동이라는 심리학적 개인변인으로 환원함으로써 종래 사회학이나 정치학, 경제학등의 영역에 속했던 현상을 심리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다.

소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낯선 느낌”인 소외감을 수반한다. Segal은 소외감을 “자신의 어떤 측면을 낯설게 느끼는 것”(p.127)으로 정의하고 소외감이 타당할 때 소외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타당성의 판단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이므로 여기서도 그의 소외이론이 경험과학적이 아님이 드러난다. 우리는 거꾸로 소외를 먼저 정의하고 개인이 소외를 의식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행동은 자기의 외적 표현으로서 자기 지각 이론(Bem, 1972)에서 모두가 자기를 지각하는 주된 근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낯선 느낌은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온다.

자기-행동간의 통합

우리는 소외를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의 부재로 정의하였다. 통합성은 Marx나 Segal의 소외이론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통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였다.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을 상식적으로 접근해보면, 행동 속에서 자기의 자유의지와 의미와 자기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행동은 자기와 통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자유의지는 자율성 혹은 Segal의 행위주체성(agency)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자기의 행동이 나의 것으로 지각되고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서 자율성, 즉 자기의 臨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압력이나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은 자기와 괴리되어 자기소외의 원천이 된다. 한편 아무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행동은 소외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무절제한 쾌락의 탐닉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외의 원천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다움 혹은 適性은 행동과 자기와의 합치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본래 성격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등이 행동의 자기 합치성을 파괴해서 소외를 발생시

킨다. 물론 자율성과 의미와 적성의 세 요소가 엄격하게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행동은 종종 의미가 있고 자기에게 잘 맞는 행동이며, 타인의 강요에 의한 행동은 의미를 찾기 어렵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와 통합된 행동’은 Marx의 프락시스(praxis) 개념과 상응한다. 프락시스는 사회-역사적 조건들 내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이 조건들을 창출하는 생산활동이다. Marx는 프락시스를 통하여 세계의 변화(예; 경제적, 물질적, 역사적 조건들)와 자기 자신의 발전을 다 같이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와 통합된 행동, 즉 자율성과 의미와 적성을 갖춘 행동은 프락시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개념화에서의 소외는 프락시스의 산출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기

자기(self)는 소외의 심리학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행동이 자기와 통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에 대한 선구적 이론가인 George H. Mead(1934)에 따르면 자기는 ‘me’(대상으로서의 자기)와 ‘I’(‘me’를 바라보는 자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소외이론에 적용해 보면, 행동과의 통합이 문제가 되는 자기는 ‘me’이고 통합여부를 지켜보는 자기는 ‘I’가 된다. 그러나 Mead에 의하면 일단 ‘I’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동을 하고나면 그 행동은 곧 과거의 부분, 즉 ‘me’의 부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I’란 포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자기의反省的(reflexive) 속성, 즉 자기가 자기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에게 독특한 능력으로 간주되며 소외의 심리학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기에 관한 정보는 세 종류의 출처를 갖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나 자신의 사고나 감정의 관찰, 나 자신의 행동의 관찰 등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세 출처의 정보들은 상호 불일치하기 일쑤이지만 자기지각은 이 세 정보를 모두 이용한다.

이 자기지각의 결과로서 인간은 자기에 관한 개념, 즉 자기개념(self-concept)을 구성한다. 자기개념은

해당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거나 중요한 것으로 지각되는 성격 및 다른 특성들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Kihlstrom & Cantor, 1984). Markus(1977)는 자기개념을 자기에 관한 정보가 인지적 구조로서 조직화된 자기도식(self-schema)으로 파악한다. 자기도식은 과거 경험의 결과로 발달한 일반화로서 뒤에 자기에게 적절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자기를 자기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외의 연구에 상당한 편의를 가져 온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자기를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파악한다면 만일 그가 성취지향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소외의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를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개념으로 규정하는 입장은 다분히 인지주의적이다. 자기는 인지적으로 파악되는 측면 뿐만 아니라 존재는 하되 인지되지는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자기개념은 자기의 일부분만을 포괄할 따름이다. 자기는 또한 개인차적인 부분과 더불어 생물학적으로 규정되는 부분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부분들도 포함해야 한다. 철학과 사회학에서 소외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상실되는 부분으로 언급된 것들은 개성보다는 오히려 人性이었다. 따라서 소외현상에서의 자기는 의식되는, 타인과 상이한 개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의식되지 않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 생물학적 요소, 사회학적 요소, 형이상학적 요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외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 '자기'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 방법의 한 의미있는 진보는 동물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동물심리학자들은 種 특유의 행동(species specific behavior)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어떤 행동이든지 학습시킬 수 있다는 행동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었다. 종 특유의 행동은 분명히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로서 그 중에 특유한 자기를 구성한다. 한편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산물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때로는 생물학적 존재성을 망각하리만큼 사회적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생물학적인 위기(예: 사춘기, 임신, 병, 죽음 등)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가 자기내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에 대한 파악은 소외현상을 이용함으로써 접근될 수도 있다. 즉 낮설게 느껴지는 행동이나 감정, 사고, 사회적 대상들

을 조사하면 자기에 대한 간접적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자기-행동 일관성에 관한 연구들

소외를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의 부재로 정의할 경우 자기-행동 일관성에 관한 심리학의 기존연구들은 소외의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자기-행동 일관성 연구들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경향성에 관한 연구들과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자기와 실제 행동간의 비일관성을 제시하는 연구들, 그리고 자기의식에 관한 개인차 및 실험실 연구들로 대별된다.

자기-행동 일관성 경향에 관한 연구들 중 대표적인 것은 Festinger(1957)의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두개의 모순되는 인지는 부조화라는 불쾌한 상태를 가져오고 개인은 이 인지부조화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Festinger는 이 이론을 태도변화의 설명에 적용하였다. 즉, 자신의 태도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된 개인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태도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의 두 인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인지 부조화)을 (행동에 대한 다른 적절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지 부조화 연구는 인지 요소들간의 일관성을 지향하는 욕구를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자기-행동의 일관성 이론인 소외이론을 지지해주는 연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소외이론은 몇가지 중요한 점에서 인지 부조화 이론과 다르다. 첫째, 소외의 심리학에서 보면 태도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태도, 즉 자기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데서 오는 소외의 현상이다. 즉 피험자들에게 어떤 소외의 증상들이 체현되며 어떻게 이 소외장면에 대응하는가의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 피험자들 자신에게도 태도 변화 보다는 소외의 체현이 보다 절실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인지 부조화 이론이 의식된 인지 요소들간의 부조화만을 대상으로 한 데 비해서 소외이론은 자기나 행동 그리고 둘간의 일관성에 대한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이론에서의 부조화는 인지적 부조화라기 보다는 존재적 부조화(existential dissonance), 즉 존재 요소들간의 부조화인 것이다.

한편 성격과 태도측정에 대한 연구들은 자기-행동 일관성이 종래 생각했던 것처럼 강력하지는 않다고 주장

한다. Mischel(1968)에 따르면 성격에 대한 자기보고 식 측정치와 행동측정치간의 상관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또한 사회심리학자들은 태도측정치로부터 행동을 예언할 때의 부정확성을 지적한다(Wicker, 1969). 이들 연구들로부터 검사나 척도를 개선하여 보다 행동의 예언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들이 후속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의 상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행동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상황간의 타협이기 때문에 상황이 무시되어 왔던 것은 잘못이다. 이들 연구들에서의 자기-행동 비일관성의 발견은 소의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현상의 보편성을 보여 줄 따름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보다 상황을 의식하여 행동을 조율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보다 자기 자신과 일관성있는 행동을 추구하는 데 더 노력한다. 전자는 자기검색(self-monitoring)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자기검색 정도가 낮은 사람들이다(Snyder, 1974). 한편 실험실에서 자기의식을 고양시키는 조작을 가하면 피험자들은 보다 자기의식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다(Duval & Wicklund, 1972). 그러니까 자기-행동의 일관성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작에 의해서 그 정도가 변화될 수도 것이다.

소외의 유발

소외를 유발하는 조건들로 자기의 구성요소들간의 갈등, 자기와 상황간의 갈등, 그리고 現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갈등의 세 조건들을 언급하였다. 각각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의 요소들간의 갈등

심리학에서 잘 통합된 자기는 건강한 성격의 지표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통합된 자기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에서나 전통적인 성격심리학에서나 다같이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다. 정신분석학의 경우 id와 superego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ego인데 이 ego의 조정역할은 新프로이트 학파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전통적인 성격심리학자인 Allport도 통합된 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성격을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내의 심리 신체적 체계들의 역동적인 조직화”(1937, p. 48)라고 정의하면서 성격의 일관성과 조직성

을 강조하였다. 소의이론에서도 통합된 성격 혹은 통합된 자기를 강조한다. 성격 혹은 자기의 요소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상태에 있게 되면 소외가 발생한다.

소의이론가인 Segal은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신념(beliefs), 가치(values), 정서(emotions), 원망(desires), 의도(intentions), 기분(moods), 계획(projects), 태도(attitudes), 기호(tastes), 기억(memories)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들 요소들이 서로 간에(예를 들면 신념과 원망간) 혹은 각 요소내에서(예를 들면 원망과 원망간) 갈등상태에 있으면 통합되지 못한 자기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와 행동간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인 소외가 발생한다. 즉, 통합되지 못한 자기는 자율성과 의미와 적성을 갖춘 행동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다. Wagner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트리스탄은 마크왕에 대한 의리와 이졸데에 대한 사랑 때문에 괴로와하는데 그의 어떤 행동도 자기 전체와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요소들간의 갈등에 기인하는 소외는 자기를 재통합함으로써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

자기와 상황간의 갈등

자기의 요소들이 잘 통합되어 있다고 소외를 체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기의 요소들은 해당 개인의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통합되는 것이 정상이다. 예를 들면 창조적인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창조적 가치를 존중하고 창조적 작업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창조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예술가로서의 활동에 적합하도록 자기가 통합된 사람이 비즈니스의 업무를 맡았다고 하자. 그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의 행위를 어색하게 느끼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신을 낯설게 바라본다. 즉 소외를 느끼는 것이다. 흔히 소외의 상황에서 갖게되는 소외는 이중적이다. 사람들은 자기와 괴리된 행동을 하는 **자**인을 이질적으로 느끼는 동시에 상황과 통합되지 않는 자기가 상황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느낀다.

심리학에서는 한동안 행동의 결정에 성격과 상황의 두 요소가 공헌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성격검사가 개인의 행동을 잘 예언하지 못한다는 Mischel(1968)의 지적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의 지적은 Lewin(1935)의 공식에 따라

개인의 행동 (behavior)을 개인 (person)과 상황 (situation)의 함수 ($B=f(P, S)$)로 본다면 개인에 대한 지식이 설명 못하는 몫은 상황이 채울 수 있다는 논리이다. 초기에는 변량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 상황, 그리고 개인×상황의 세 성분이 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을 추정 비교하였다. Bowers(1973)는 이들 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세 성분 중 개인×상황의 설명변량이 가장 크고 개인과 상황의 설명 변량은 그보다 작고 서로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Mischel과 변량분석적 연구결과들의 영향으로 한때 성격검사 나아가서는 성격이론의 효용성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성격의 역동성에 대한 인식에 힘입어서 다시 성격의 중요성이 점점 재인식되는 형편이다(Snyder & Ickes, 1985). 성격의 역동성이란 성격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성, 즉 상황을 선택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사교적인 사람이 명상모임 대신 파티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파티를 보다 흥겹게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은 이와 같이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황을 선택하고 또한 상황에 영향을 미쳐 자기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통제역량은 집단이나 권위적인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다. Asch(1951)의 동조유도 장면이나 Milgram(1963)의 복종강요 장면 등은 극히 불리한 외부조건들을 갖춘 소외의 상황이다. 한편 개인의 성격 중에서는 특히 경직성, 의존성, 및 권위주의 성격 등이 상황과 관련된 소외를 증가시키는 후보일 것이다.

現자기와 理想的 자기간의 갈등

자기의 요소들간에 잘 통합이 되어 있고 또한 자기-상황간에도 잘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소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싯달타는 잘 통합된 성격과 부유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던 젊은이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출가하여 구도의 괴로운 길을 떠난다. 즉 그는 자신의 現자기(present self)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적 자기(ideal self)에의 열망을 좇은 것이다. 이와 같이 現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소외의 상태이다.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이상적 자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Maslow(1954)는 인간의

욕구들(needs)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인간은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윗 단계의 욕구로 이행해 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위의 단계로 자기변환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다. 그의 모형에서 가장 위의 단계는 자기 실현(self-actualization)의 단계라고 한다. 한편 Rogers(1961)는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불일치가 내담자들의 주요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실현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자기실현의 욕구가 건전하게 발현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現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요소들간에 통합이 결여되었던 경우와 같이 행동과 자기간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現자기를 반영하지만 이상적 자기와는 괴리된 행동은 이상적 자기와 통합되지 않고, 반대로 現자기와는 괴리된 채로 이상적 자기에만 충실한 행동은 現자기와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속에서 現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잘 통합되어 있어야 소외를 피할 수 있다.

탈 소 외

소외는 부적 상태이기 때문에 소외를 방지하거나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의 모색은 소외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소외를 형이상학적으로 규정한 Hegel의 경우 탈소외는 절대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한편 소외를 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한 Marx는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탈소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소외의 원인을 현대 산업사회의 필연적 산물로서 간주한 Fromm은 인성의 회복을 위한 여러 처방들을 제시함으로써 탈소외를 기도한다. 그러나 소외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외를 특정 문화와 결합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소외는 개인과 상황의 함수이다. 이 두 요소 사이에서 자율적이며 의미있고 개성에 맞는 행동을 산출하면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소외의 심리학에서 소외의 극복이나 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다음 세 갈래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변화

소외는 개인내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現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상황에 대한 주도

권을 보유하면 극복될 수 있다. 우선 개인내의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통합은 성격의 통합, 적절한 인지적 노력에 의한 요소들간의 갈등의 감소 등을 포함한다. 한편 現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괴리는 적절한 이상적 자기를 설정하고 이상적 자기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기에게 적절한 상황을 선택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성을 길러줌으로써 자기와 괴리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상황의 변형

앞에서 소외를 유발하는 상황들을 열거하였다. 소외는 자기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지만 상황의 변형에 의해서 소외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다. 자기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소외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황을 자기와 조화되도록 변형시키거나 잘 조화되는 상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소외의 방지나 극복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에게서 떠들썩한 파티보다는 아주 친근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모임을 마련해주는 것 등이다. 소외를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황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허용적이며 융통성있게 조성하는 것이다. 비록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이 그 개인의 자기와 갈등적인 상황일지라도 개인의 행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외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개혁

소외의 조건으로서의 사회구조의 역할은 심리학적 소외이론에서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소외의 성향을 개인에게 길러주고 소외의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상존한다. 심리학적 소외이론에서의 한 특징은 특정 사회구조를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소외사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의 상황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에 근거해서 그 사회의 소외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준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들도 소외사회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에 대해서 소외의 유발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한다면 보다 소외가 덜 심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소외와 중요한 심리현상들

지금까지 철학과 사회학에서 논의되어 오던 소외를 심리학적으로 새로이 개념화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개념의 소외는 심리학의 중요한 현상들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통찰과 시사를 주는가? 심리현상들중 적응, 발달, 집단간 갈등, 성역할 등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적응

적응은 소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제이다. 적응은 소외의 반대상태로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종래의 적응연구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존재양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였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의 변화보다는 개인의 변화가 선호되며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범 유기체적 기제인 학습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입장은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고 개인적 조건보다는 환경적 조건을 중요시하는 심리학의 편파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응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일방적인 순응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소외의 심리학에서 보면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을 상실하고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 소외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부적응하는 개인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능력, 성격, 성장, 및 현재의 배경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규범적인 적응형태를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소외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상황을 개인에 맞추어 변형시킬 수만은 없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외의 상황이 개인의 삶에서 상존하거나 자주 부딪치는 현실이므로 개인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소외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응을 개인과 상황을 통합하는 행동 양식으로 간주한다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직성은 적응에 유해한 성격인 것이다. Merleau-Ponty(1963)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환경(milieu)에 융통성있게 반응하는 구조화의 힘(혹은 자유)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외가 부적응의 대부분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어떤 유형의 소외가 부적응의 기저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다. 즉 소외가 개인의 자기의 요소들간의 갈등 때문인지, 자기와 상황간의 갈등 때문인지, 혹은 현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갈등 때문인지에 따라 부적응에 대한 처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행동에서 자율성과 의미와 적성을 추구하는 것도 자기와 통합된 행동의 창출을 가져오므로써 소외의 극복을 도울 것이다.

발 달

전통적으로 소외는 심리적으로 불쾌한 상태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결핍된 상태로 인식되어 왔다. 소외를 인성의 상실, 문화, 고립감, 인격의 분열, 노예로의 전락 등등으로 묘사한 것이 그 증거들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예 ; Sartre)은 현대사회에서의 소외의 체험은 진실한 체험이며 소외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무지나 자기기만이라고 주장한다. Kaufmann(1965)은 더 나아가서 소외상황의 보편성을 지적하고 소외가 오히려 인간의 성장에 正的인 기능을 한다고 역설한다. Kaufmann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의식 자체가 소외구조를 내포하며 따라서 자연, 사회, 타인,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는 성장의 일부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한 인격, 한 개인,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의 모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그 결과 자기 자신이나 타인들 및 세계를 낫설고 착잡한 것으로 보기에 이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소외는 인간실존의 핵심적인 모습으로서 가치있는 인생의 경험이므로 중요한 것은 소외의 회피가 아니라 소외에 대처할 인간능력을 증대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Kaufmann의 긍정적 소외론은 발달심리학에 좋은 시사를 준다. Kaufmann의 입장을 따른다면 인간은 소외와 탈소외의 반복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와 잘 통합되었던 행동은 새로운 정보나 상황을 접하면서 변화를 요구받고 그 결과 개인은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의 붕괴, 즉 소외의 체험을 갖게된다. 이 소외의 체험이 축적되면 개인은 이 불쾌한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Riegel(1976)이 제시하고 있는 변증법적 발달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자의 관심은 발달과 관련된 소외의 발생상황을 찾고 탈소외가 자기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개입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데 집중된다.

소외-탈소외의 발달기제는 Piaget의 동화-조절의 발달기제에 결핍된 존재론적 발달과정을 설명해 준다. 도덕행위로 본 도덕성의 발달이나 개종 등의 현상은 단순히 인지구조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존재론적 변화는 소외-탈소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집단간 갈등

Roger Brown(1986)에 따르면 집단간 갈등은 내집단 중심성과 고정관념, 및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의 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집단간 갈등의 해소는 위의 세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셋 중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는 경제학의 영역인듯 싶으나, 심리학에서도 형평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자원의 분배에서 어떤 正義의 원리가 선호되는가, 형평의 개념은 무엇인가, 형평이 파괴되었을 때의 반응들은 어떠한가 등에 관심을 갖는다.

심리학자들이 집단간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주로 관심을 쏟는 요소는 고정관념이다. 심리학에서는 고정관념이 대부분 근거가 약하다는 전제하에서 상대집단원과의 접촉이 잦으면 고정관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인지적 해결책의 하나로서 이수원(1988)은 조망의 확대를 제의한다.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자기집단의 조망만을 취하지 않고 상대집단의 조망까지 포함하는 조망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집단간 갈등은 사라지리라는 것이 이수원의 주장이다. 조망의 확대는 상대입장의 이해라는 실제적 의미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태도를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상대집단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본틀의 변화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수원의 조망확대 방향은 전형적인 인지방략으로서 집단간 갈등의 감소에 기여는 하겠으나 문제의 해결에 이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우리사회에서 호남인의 조망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호남인에 대한 이해는 도울 것이나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데도 기여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집단간 갈등이나 편견에는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 뿐만 아니라 고전적 조건형성에 의한 감정의 문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interest)의 문제 등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Tajfel(1982)이 지적했듯이 내집단 선호성(ethnocentrism)은 단순한 집단구분만으로도 나타나는 기초적 심리과정이다. 그러므로 집단간 갈등의 해소에는 인지적 방략 뿐 아니라 존재론적 방략, 즉 소외의 관점이 요구되는 것이다.

소외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집단간 갈등의 해결은 자기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의 일부만이 변화하는 것은 소외를 유발한다. 물론 소외의 유발이 탈소외를 지향하면서 나머지 요소에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고정관념의 변화가 감정이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든지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보듯이 행동의 변화가 인지나 감정의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등) 소외가 그 성격상 해당 개인에게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는 부정적 경험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변화의 한 예는 자기를 상대집단까지 포함하는 더 큰 집단의 구성원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민경환, 1988). 예를 들면 영남인이 자기를 영남인으로 정의하는 대신에 한국인이나 아시아인 혹은 인간으로서 정의하는 것 등이다. 물론 자기의 재정의에는 그러한 변신을 돕는 호의적인 상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집단을 차별하는 상황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존속하는 한 자기의 변화는 어려울 뿐더러 변화된 자기는 상황과의 비통합 때문에 소외를 발생시킬 따름이기 때문이다.

성역할

Simone de Beauvoir(1953)는 전통사회의 여성 차별 때문에 여성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소외현상을 논의하였다. 한편 그후의 많은 여성운동가들은 남녀간의 차별이 여성의 능력과 속성에 대한 왜곡된 평가에서 비롯되었으며 남녀의 구분된 성역할의 대부분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일부 심리학자들(예: Bem, 1976)은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제의하면서 남녀 모두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양성의 바람직한 성격들을 고르게 갖춘 양성적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에 있어서의 성역할의 혼미는 소외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소외의 심리학에서 본다면 무엇이 소외를 가져오며 그 해소책은 무엇이었느냐를 찾아야 한다. 직장에서 요구하는 성역할과 가정에서 훈련되어 형성된 성역할, 그리고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성역할

들은 현대사회에서 상호 갈등을 일으키곤 한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역사적으로 억압되어 왔으며 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보다 심각하겠으나 여성의 부상으로 고유한 성역할을 위협받게 되는 남성의 경우에도 그 갈등은 적지 않다.

사회적 과도기에 소외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다. 과거의 문화적 풍토에서 형성된 자기는 현재의 문화가 요구하는 행동과 갈등을 빚게 마련이다. 다른 한편 격변기의 소외현상을 발달에서와 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기-행동의 통합의 실패는 자기에 대한 심각한 위협, 즉 소외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자기를 새롭게 재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으로서의 자기,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기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종래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특징들로 간주되어왔던 많은 차이들이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오늘날 남녀간의 생리적인 차이로 학자들간에 인정되고 있는 것은 수리 및 공간 능력에서의 남성의 우월성, 언어능력에서의 여성의 우월성,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성이 더 높다는 정도이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이 성역할에 관한 사회화와 교육, 및 사회제도들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성역할은 종종 자기의 중심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성역할 관념의 변화에 대한 시도는 존재를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소외의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다. 훗날의 시인들이 어린시절 아들의 소위 남성성의 결여를 교정하겠다는 아버지의 노력 때문에 괴로움을 겪은 이야기는 비밀비재하다. 그러나 성역할과 관련된 소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타고난 성향과 사회환경과 문화 등을 모두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심리학적 소외이론의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종래 철학이나 사회학의 영역이던 소외개념을 심리학에 도입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여러 심리현상들을 재조명하는 데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비판들이 예상된다.

첫째, 사회과학적 입장을 취하는 소외학자들은 심리

학적 소외이론이 소외현상을 脫문화시킴으로써 사소화(trivialize)하거나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할 것이다. 소외는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산업사회의 상징적 증상으로서 문명비판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소외의 심리학에서는 소외를 개인적인 체험이며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문화, 역사, 및 사회적인 풍부한 의미를 박탈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외를 특정 문화와 결합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소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 대신 소외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상황들을 조사하고 이들 소외상황들이 각 문화에서 출현하는 양태와 빈도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소외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에 대한 비판은 사회과학자들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에서도 예상된다. 전통적인 행동주의나 최근의 인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피동체이거나 고등지능을 가진 컴퓨터이다. 그러나 소외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이 둘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존재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실존적 존재로 파악한다. 이러한 실존적 인간관이 심리학이라는 과학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는 과거에 인본주의 심리학의 전개를 지켜본 많은 심리학자들에게 회의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적 경험이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외의 심리학이 진실한 심리현상을 다룬다는 믿음이 있으며, 다만 연구수행에서 과학적 접근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소외의 심리학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은 경험적 토대의 취약성일 것이다. 비록 자기-행동 일관성을 비롯 소외현상의 배경을 이루는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언급하였으나, 소외현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자료는 아직 수집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소외의 심리학은 아직 사변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토대의 취약성은 소외현상이 심리학내에서 논의 연구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 경험적 자료들이 수집됨에 따라 현재의 사변적 토대에서 형성된 소외이론은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외의 심리학은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의 첫 시도이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거나 임의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우선 우리는 소외를 전통적인 소외이론들의 정의에 따라 자기소외에 국한시켰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일상용어에서 회자되는 소외개념은 주로 사회적 소외의 의미이다. 아마도 전통적 이론과 현재의 용례를 모두 고려한다면 심리학에서의 소외를 자기소외와 사회적 소외로 분류하여 각각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한편 자기소외를 보다 전통적인 소외의 정의에 근접하도록 '자기의 통합의 부재'(Segal, 1991)로 정의하는 대신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의 부재'로 정의한 것 역시 논란거리이다. 필자는 자기의 통합의 결여라고 볼 수 있는 자기의 요소들간의 갈등 및 現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갈등을 소외 자체로 보는 대신(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의 부재로 정의되는) 소외의 유발조건들로 간주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외개념의 변화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덧붙여 자기와 행동간의 통합을 행동의 자율성과 의미와 적성의 존재 여부로 해석한 것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개념들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로 사용된 것도 사실이다(자기와 행동이 그 대표적 예들임). 필자는 나름대로의 근거 위에서 이론을 정립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이론과 개념들의 정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소외의 심리학은 인간의 변화의 능력과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상황에 맞추어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강조된다. 그러나 소외의 심리학에서는 상황에 대한 적절성 보다는 자기에 대한 적절성을 강조하는 까닭에 적응이나 자기변화 등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상 유무에 의해서 용이하게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 입장과 대립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외의 심리학은 인간관이나 적응의 정의에 있어서 전통적 심리학과 다르다. 즉 소외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보상기제에 의해서 조작되는 피동체로 보지 않고 행동의 자율성과 의미와 적성을 추구하는 능동적 존재로 파악하며, 적응 역시 상황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와 상황을 적절히 통합하는 행동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소외의 심리학에서도 적응과 자기변화는 가능한 것으로 보되 그 기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외의 심리학이 인식론과 기계론적 인간관에 기울어진 현재의 심리학에 존재론적 관점과 인본주의의 인간관을 부활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음은 앞에서 여러번 강조한 바다. 그와 더불어 소외의 심리학은 심리학과 여타 사회과학간의 교량의 역할을 하리라고 전망한다. 우리는 사회과학적 성격을 지닌 소외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재정의하고 심리학적 연구의 가치를 역설하였다. 소외 현상은 지금까지 사회의 산물로 간주되어 왔지만 소외의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몫을 강조하였다. 다른 모든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소외 역시 개인과 사회(심리학에서는 상황)의 상호작용이므로 소외의 심리학은 다른 관련 사회과학들과 공동으로 소외현상을 탐구할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소외의 심리학은 무엇보다도 경험적 연구의 질과 양에 의해서 그 가치와 타당성이 증명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리학적 개념화 자체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수정 변형되기도 할 것이다. 앞의 '소외와 중요한 심리현상들'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소외와 관련된 미래의 경험적 연구의 주제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소외의 증상들, 자기소외와 사회적 소외의 관계, 사회적 소외의 유발조건들, 소외상황들의 탐색, 소외에 취약한 성격변인들, 발달단계에 따른 소외 양상의 변화, 정체감 위기와 소외와의 관계, 종교, 사랑, 인간관계와 소외, 소외 및 탈소외에서의 동·서양 차이 및 남녀 차이 등등.

참 고 문 헌

민경환(1986). 사회심리학의 방법론 논쟁: 그 소개 및 한국의 사회심리학에 던지는 의미. *한국 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김경동과 안청서 편저, pp. 233-267). 서울대학교 출판부.

민경환(1988). 집단간 갈등—그 병리의 이해와 처방.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한국 심리학회편, pp. 91-121). 서울: 성원사.

이수원(1988). 집단 고정관념의 변화.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한국심리학회편, pp.67-89). 서울: 성원사.

정문길(1978).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정문길(1984). *소외*. 서울: 문학과 지성사.

Allport, G.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Asch, S.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H. Guetzkow(Ed.), *Groups, leadership and men*. Pittsburgh, PA: Carnegie Press.

Beauvoir, S. (1953). *The second sex*. New York: Alfred A. Knopf.

Bem, D.J. (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6, pp.1-62). New York: Academic Press.

Bem, S.L. (1976). Probing the promise of androgyny. In A.G. Kaplan & J.P. Bean (Eds.),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pp. 48-62). Boston: Little, Brown.

Bowers, K.S. (1973). Situationism in psychology: An analysis and a critique. *Psychological Review*, 30, 307-336.

Brown, R. (1986). *Social psychology*(2nd ed.). New York: Free Press.

Duval, S., & Wicklund, R.A.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 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Fromm, E. (1941).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Fromm, E. (1947). *Man for himself: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eth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Fromm, E. (1956). *The sane socie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Kaufman, A.S. (1965). On alienation. *Inquiry*, 8, 141-165.

Keniston, K. (1960). *The uncommitted: Alienated youth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Dell.

Kihlstrom, J.F., & Cantor, N. (1984).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In L. Berkowitz

-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7, pp. 2-47). New York : Academic Press.
- Lewin, K. (1935).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 McGraw-Hill.
- Lichtheim, G. (1974). Alienation. In D.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 1, pp. 264-268). New York : Macmillan & Free Press.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Brother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leau-Ponty, M. (1963). *The structure of behavior* (A. L. Fisher Trans.). Boston : Beacon Press.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371-378.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 Wiley.
- Outhwaite, W. (1983). Alienation. In R. Harre & R. Lamb (Eds.),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p. 19). 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 Petrovic, G. (1972). Alienation. In P. Edwards (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1, pp. 76-81). New York : Macmillan & Free Press.
- Riegel, K. F. (1976). The dialectics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1, 689-700.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London : Constable.
- Segal, J. M. (1991). *Agency and alienation: A theory of human presence*. Savage, Maryland : Rowman & Littlefield.
- Seeman, M.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783-791.
- Seeman, M. (1972).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A. Campbell & P. Converse (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pp. 467-527). New York : Russell Sage Basic Books.
- Snyder, M. (1974).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26-537.
- Snyder, M., & Ickes, W. (1985).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883-947).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ennies, F. (1967). *Community and society*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translated by C. P. Loomis). East Lansing :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Vandenberg, B. (1991). Is epistemology enough? : An existential consideration of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 1278-1286.
- Wicker, A. (1969). Attitudes vs. actions :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25, 41-78.

A Psych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Alienation

Kyung-Hwan Mi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pt of alienation has undergone changes in its meaning through the history of philosophy. Since Marx it has been used as a civilization-criticizing concept which indicates humanbeing's existential modes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alienation has been neglected in psychology, an empirical science focusing on an individual's behavior. However, alienation is an important psychological phenomenon, and also an ontological concept which needs to be introduced into and illuminated in epistemologically-biased psychology. The present author proposed a psych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alienation by defining alienation as 'the loss or absence of integration between one's self and his behavior. Based upon such psychological definition several related topics were discussed. They were alienation-provoking conditions, dealienation strategies, alienation-related psychological phenomena, and future research subjects in the area of psychology of alienation.